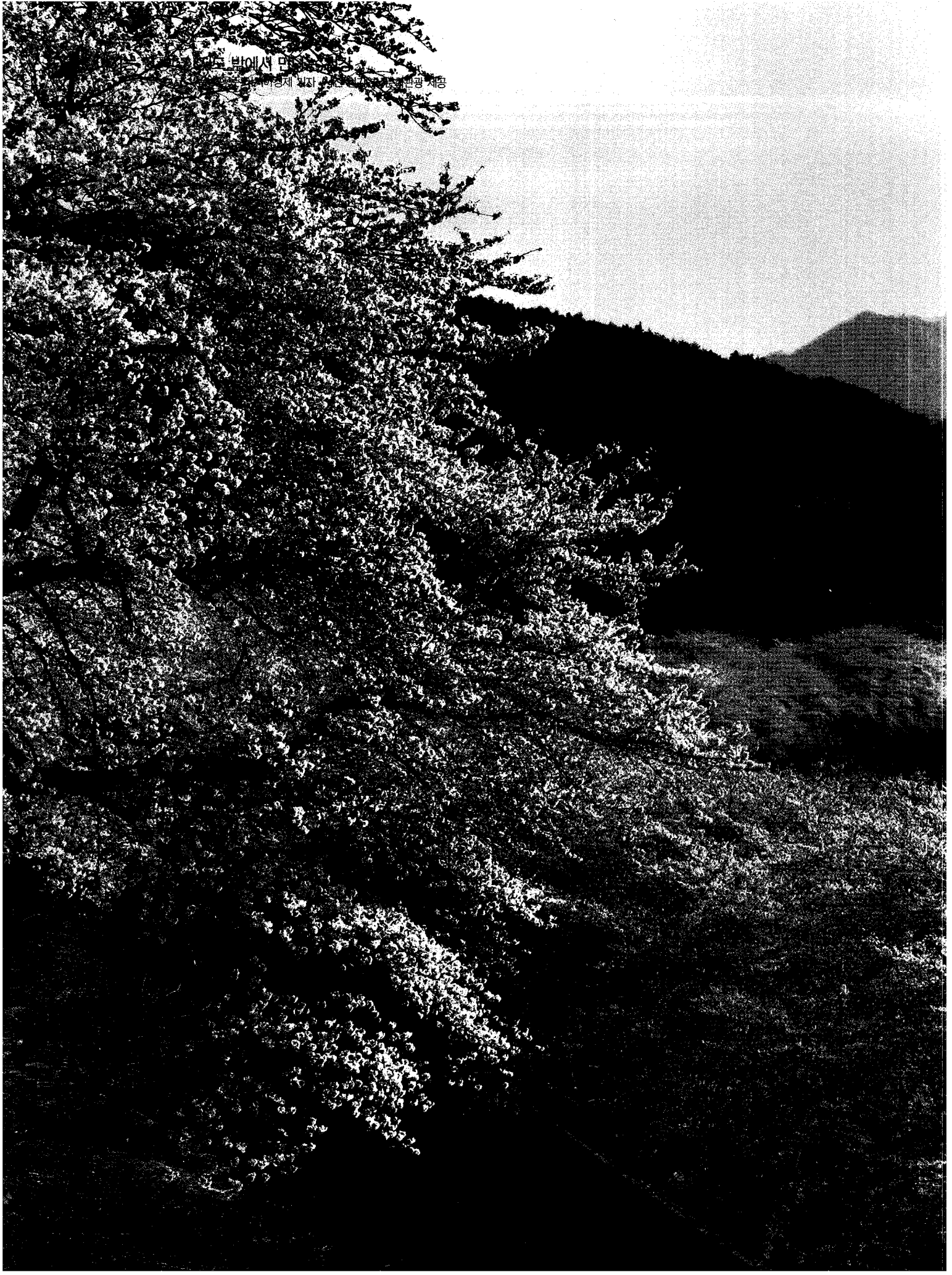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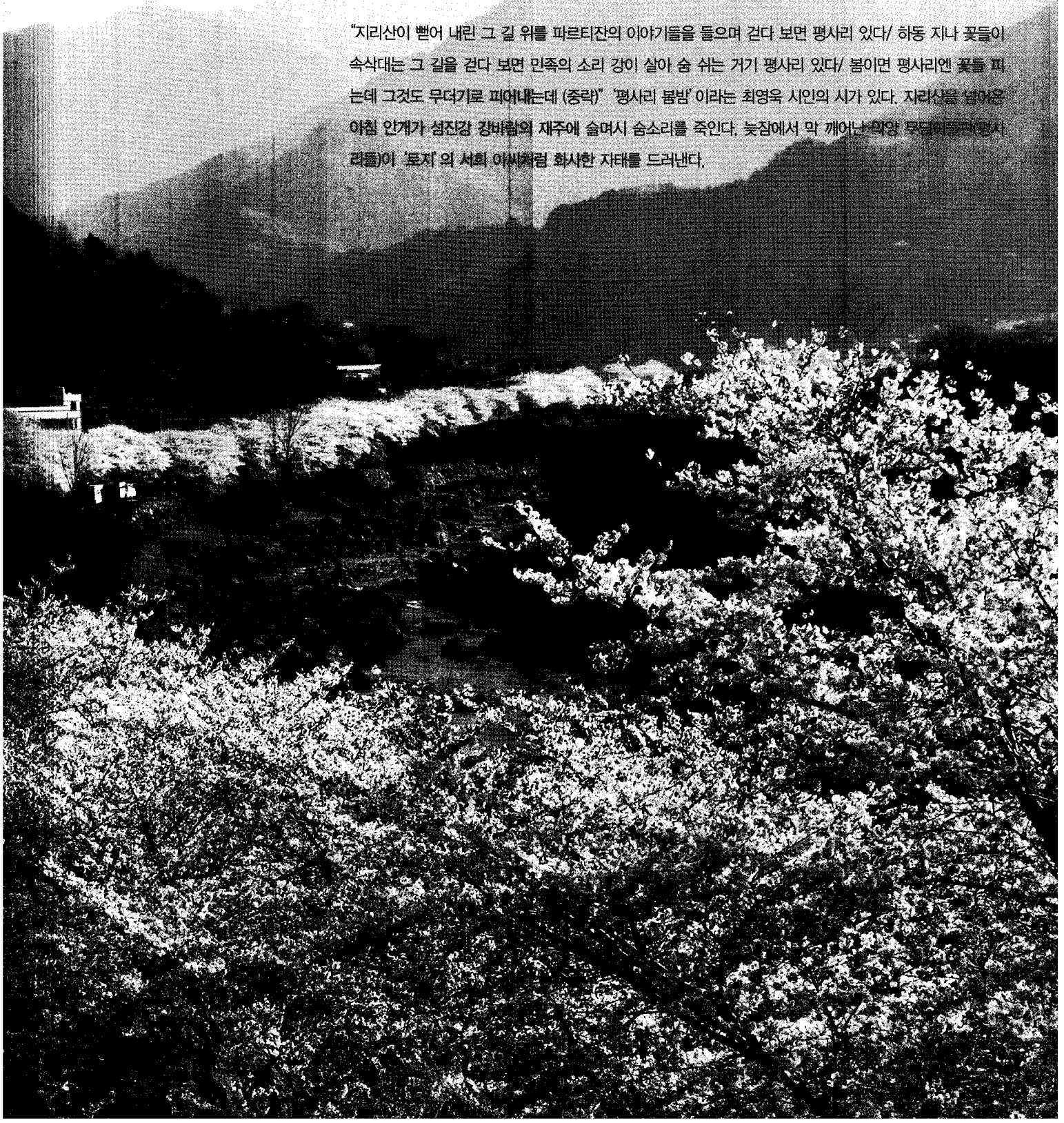


산에서 만나는 가을
산에서 만나는 가을
산에서 만나는 가을



하동 토지길 봄바람 따라 사뿐사뿐

“지리산이 뻗어 내린 그 길 위를 파르티잔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걷다 보면 평사리 있다/ 하동 지나 꽃들이
속삭대는 그 길을 걷다 보면 민족의 소리 강이 살아 숨 쉬는 거기 평사리 있다/ 봄이면 평사리에 꽃들 피
는데 그것도 무더기로 피어내는데 (중략)” ‘평사리 봄밤’이라는 최영욱 시인의 시가 있다. 지리산을 넘어온
아침 안개가 섬진강 강바람의 재주에 슬며시 숨소리를 죽인다. 늦잠에서 막 깨어난 악양 무덤이들(평사
리들)이 ‘토지’의 서희 아씨처럼 화사한 자태를 드러낸다.



섬진강 따라 토지길 따라

파릇파릇 연둣빛 보리밭과 초록빛 밀밭, 질펀하게 물먹은 황토빛 논, 만석지기 두엇은 능히 널만한 찰진 이 무덤이 들판은 내모 반듯반듯 정갈하다.

형형색색 바둑판을 그리는 들판을 따라 한가운데로 나선다. 그곳엔 <토지>의 젊은 시절 서희와 길상처럼 애뜻한 그리움을 품은 소나무 두 그루가 그윽한 솔향을 날리고 있다. 소나무를 둘러싼 악양 들판이 일으키는 달콤한 연둣빛 지진에 흔들리다 파묻혀도 좋은 그런 풍요로운 아침이다.

지리산 맑은 물로 몸집 불린 섬진강이 하동포구 80리를 이루는 악양면 평사리. 고(故) 박경리 선생은 섬진강과 지리산이 어우러진 평사리를 무대로 대작 <토지>의 이야기를 실처럼 풀어냈다. <토지>는 평사리의 대지주 최씨 가문의 4대에 걸친 비극적 사건을 다루면서 개인사와 가족사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 풍속, 사회사를 모두 담고 있다. 문화생태탐방로인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길'은 <토지>의 무대를 밟아가는 도보길이다. 총 31km의 '토지길' 중 <토지>의 실제 배경이 되었던 평사리를 지나는 1코스(18km)와 19번 국도를 따라 꽃길을 걷는 2코스(13km)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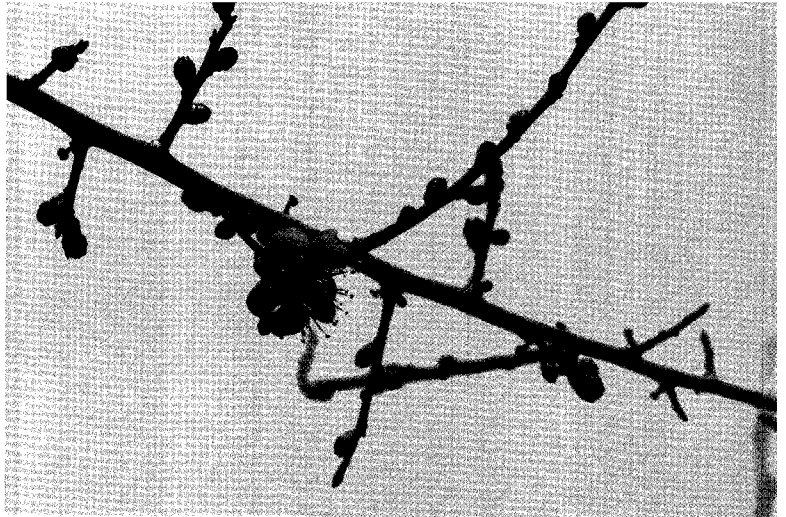
평사리에서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를 좋아했던 박경리 선생

꽃이 마를 날이 없다는 길 위, 이곳에서 내려다본 섬진강은 꽃만큼 아름답다. 별을 받은 강물이 너울질 때마다 섬진강은 황금빛 실처럼 길게 몸을 튼다. 하동읍에서 차로 10분여 달리면 평사리공원으로 불리는 개치나루터에 닿는다.

소설 속 모든 인물이 평사리를 떠나거나 혹 되돌아오던 길목의 개치나루터. '용이가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던 월선이는 하동장터나루에서 출발하는 마지막 나룻배를 타고 평사리로 찾아든다. 이를 안 강청덕은 선걸음으로 장터로 내달려 월선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패약을 부리기도 한다. (<토지> 中)

개치나루터에서 시작하는 '토지길' 1코스는 평사리 들판~고소산성~최참판댁~조씨고가~취간림~악양루~섬진강변으로 이어진다. 평사리 공원을 들어서면 빠죽 고개를 내민 장승 한 무리가 반긴다. 입을 동그랗게 하고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잡는다. 섬진강을 누볐을 소설 속 그 나룻배였는지도 모를 배가 모래톱에 걸터앉아 강을 바라본다.

공원을 나선 토지길은 19번 국도를 가로질러 곧장 '무덤이들'로 불리는 악양들판으로 휘적휘적 내려선다. '무덤이들'은 밀물 때 섬진강물이 역류하고 홍수가 나면 무시로 물이 드나들었다고 해서 붙여진 순우리말 이름이다. 들판은 무려 83만 평으로 소설 <토지>가 이곳에 자리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정표를 따라 반듯반듯한 보리밭과 밀밭 사이로 빨랫줄처럼 뻗은 농로를 가다 보면 들판 한가운데에 자리한 소나무 두 그루와 마주한다. 흰칠하고 단아하다. 사람들은 부부소나무라고 부른다. 용이와 월선이 소나무라고도 한다. 그러나 최영욱 하동 평사리문화관장은 '사랑송'이라고 말한다. 부부송이던 용이와 월선의 소나무이던 이 모두가 사랑을 매개체로 이뤄진 나무이기 때문이란단다. 소나무 둘레엔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그 옆으로 물꼬에 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정겹다. 박경리 선생은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고 했다. 맞다. 넉넉한 이 들판은 모든 생명을 거두고 자신이 키워낸 쌀과 보리로 못 생명들의 끈을 이어주는 그런 곳이다. 하지만, 선생은 토지를 집필할 때는 평사리에 한 번도 찾지 않았다고 한다. 이토록 생생하게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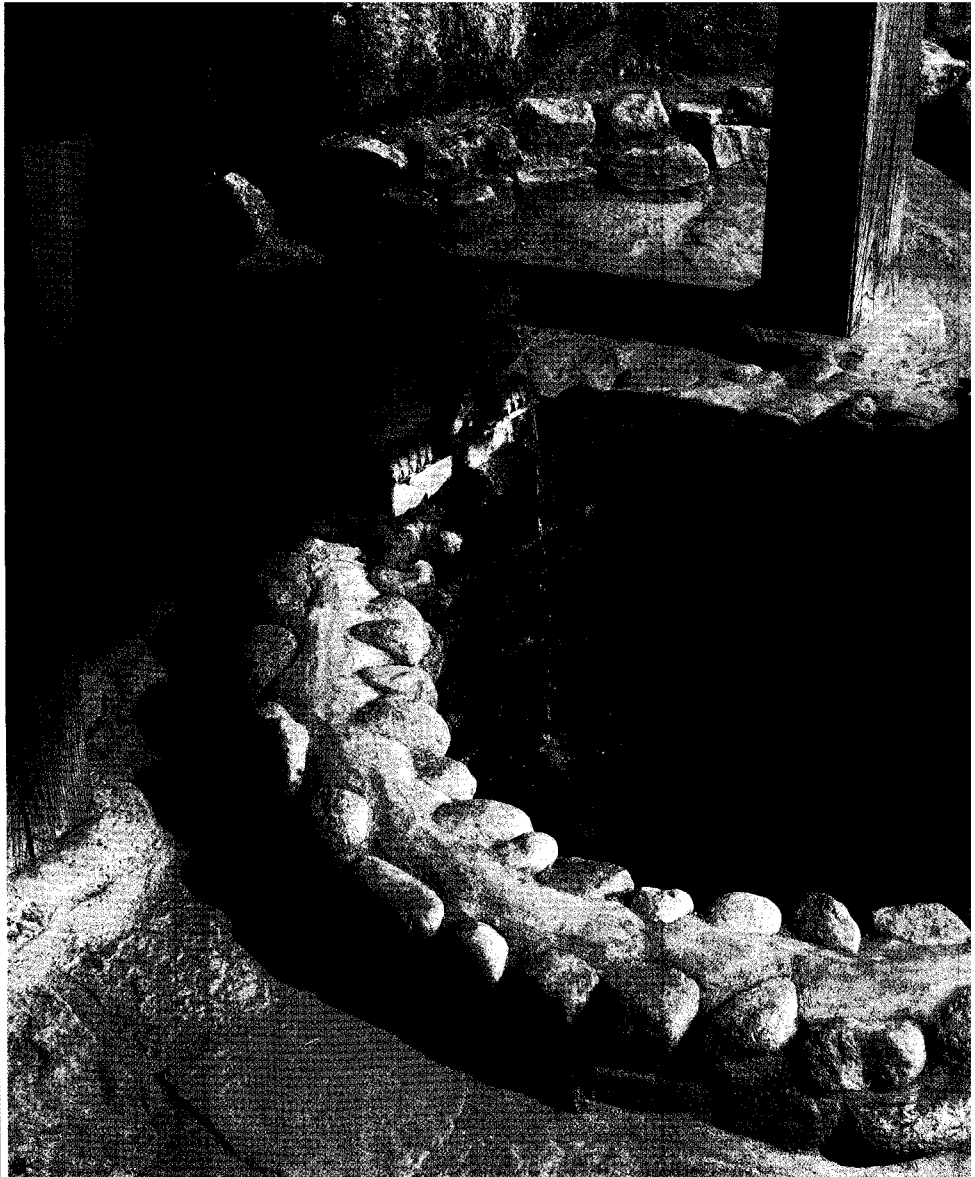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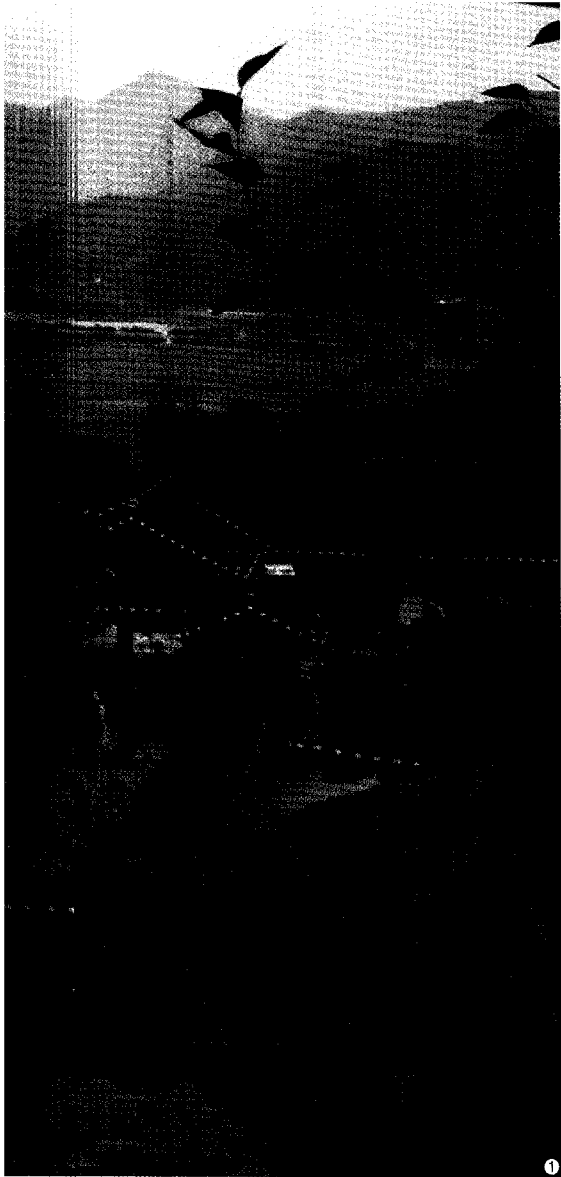


사리 너른 들과 강 개펄의 정취를 딱 들어맞게 묘사했을까. 그저 신비하기만 하다. 사랑송을 지나면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침략할 때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지나다 당나라 악양의 '동정호'와 흡사하다고 해 이름 붙여진 동정호를 만날 수 있다.

섬진강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최참판댁'의 배경 '조씨고가'

동정호를 벗어나면 '최참판댁' 입구 삼거리다. 여기서 우선 한산사 방향으로 오른다. 평사리 최고 전망대인 고소산성을 들르기 위해서다. 한산사 뒤로 난 오솔길을 따라 40분쯤 오르면 고소산성에 닿는다. 삼국시대에 쌓은 해발 300m의 고소산성은 둘레 800m 높이 3.5~4.5m의 석성으로 백제군과 나당연합군이 격돌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솔바람 부는 산성에 앉아 드넓은 악양들판과 화개에서 하동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섬진강을 내려다보는 풍경은 가히 장관이다.

산성에서 내려오면 바로 '최참판댁'이다. '최참판댁'은 악양 들판과 섬진강 물줄기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명당자리에 터를 잡고 있다. '최참판댁'에서 빗장을 열면 기름진 들판의 풍경이 한 폭의 병풍 그림처럼 솟을대문에 걸린다. "수동아~ 밖에 누가 오셨느냐!" 사랑채에서 칼칼한 목소리의 최치수



1. '최참판댁'을 나와 돌담을 따라 마을 길을 걸으면 조부잣집이라고 불리는 '조씨고개'가 나온다.
2. 지금은 과거 만석꾼의 자취는 거의 남지 않아 쓸쓸한 느낌마저 준다.

가 나올 것만 같다. 윤씨 부인과 서희가 기거했던 안채에서는 금방이라도 치맛자락을 휘날리는 서희가 보일 것 같다. '최참판댁' 아래엔 용이네 집, 두만네, 월선네 등 초가집으로 이뤄진 동네가 있다. 토지 세트장이다. 실제 고추도 널려 있고, 남새밭엔 부추와 상추가 자란다. 세트장이지만 실제 삶과 겹닿지 않는다. 옛 고향에 온 듯 소박하다. 돌담 고샅길엔 봄벌이 따뜻하다. '최참판댁'을 나와 돌담을 따라 마을 길을 걸으면 조부잣집이라고 불리는 '조씨고개'가 나온다. 길은 녹차밭과 매화밭 사이를 물결 치듯 타고 돈다. 토지길이 아니라면 만날 수 없는 보석 같은 길이다. 실제 '최참판댁'의 모델이 되었다는 '조씨고개'는 어마어마한 식술과 넘쳐나는 손님들로 늘 밥 짓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단다. 쌀뜨물 때문에 섬진강이 뿌영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지금은 과거 만석꾼의 자취는 거의 남지 않아 쓸쓸한 느낌마저 준다. 17년 공을 들여 지었다던 기와집도 세월을 이기지 못한 듯하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숲에 몸을 맡긴다. 작은 숲을 헤치고 바람이 불어온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땀을 식히기에 충분하다. 바람결에 일어나 평사리 들판을 가로질러 악양루에 도착한다. 그리고 다시 강을 따라 굽이진 길을 걷는다. 넓게 펼쳐진 들판에 흐드러지게 핀 봄꽃들이 성큼 걸을 스쳐 간다. **MEDI^YCHECK**

토지길 따라 걸을 수 있는 하동으로 가보자

하동 가는 길 ✕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진주까지 간 다음, 남해고속도로 하동 나들목을 나온다. 19번 국도를 타고 섬진강을 따라 하동 방면으로 가다 보면 하동읍, 평사리, 화개마을 등이 차례대로 나온다. 평사리공원에 차를 주차하고 '토지길'을 걸으면 된다.
하동 건강식 ✕ 하동의 별미는 섬진강에서 갓 잡은 제첩으로 만든 제첩국과 제첩회다. 제첩은 크기는 작지만 영양소가 풍부하고, 특히 간 기능을 좋게 하며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먹을거리이다.